

'10.9cm 폭설' 광주, 출근길 교통대란...시민들 발만 동동

출근차량 거북이 주행...비상등·경적 요란

빙판길 운전 대신 버스, 택시 잡기도 어려워

광주에 때서운 한파와 함께 밤 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 도심 도로에선 평소 통행량에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도로 곳곳이 꽁꽁 얼어붙자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했다. 제설 차량이 바빠 지나갔지만 곧바로 눈이 소복히 쌓였다.

제설이 이뤄지지 않은 이면도로에선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했다. 주요 대규모 택지 지구와 중심 상업가인 상무지구를 잇는 무진대로에선 지·정체가 빚어져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했다.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차량이 잇달리며 곳곳에서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다. 회사원 최모(29·여)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발했는데도 지각을 겨우 면했다. 눈발이 바람에 마구 날려 잔뜩 긴장한 채 운전했다. 퇴근길은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한다"고 말했다. 버스정류소에는 내리는 눈을 피해 삼삼오오 모인 직장인들이 시내버스를 애타게 기다렸다. 위험한 눈길 운전을 삼가하려고 자가용을 두고 온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다. 자영업자 김모(57)씨는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평소면 3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걸려 도착한 적이 있다"며 "눈길에 차가 미끄러질까 걱정도 돼 아침 일찍 버스를 타러 나왔다"고 했다. 법원 쪽으로 향하는 이모(36)씨는 "직장 동료들이 눈 오는 날 출근길이 2시간 넘게 걸린다고 해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눈발이 잦아들지 않고 버스 도착 시간이 지연되자,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다급한 일부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연신 호출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아 초조한 모습이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길에 마음을 졸였다. 어느 학부모는 통학 차량을 기다리는 아이의 외투를 단단히 여미며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해"라고 당부했다. 딸의 손을 잡고 통학차량을 기다리다가 눈보라가 쏟아지자 "아무래도 불안해서 오늘은 집에 있는게 나을 것 같다"며 발길을 돌린 학부모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와 전남 15개 시·군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다.



오전 11시 기준 대설 경보 발령 지역 광주 10.9cm 등이다. 의 적설량은 장성 15.6cm, 담양 12.4cm, 서선옥기자



눈! 그리고 남겨진 내 차 출근 시간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전날 폭설에 발이 묶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

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이제 검찰이 밝혀라"

"사실 안 밝혀면 피해자가 일상 회복 못해"

여성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검찰의 명예를 걸고 박원순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수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지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피해자의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실을 정리해 박원순 사건에 얽힌 본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포렌식 수사도, 사망 동기도 공소권 없음과 고인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이 짓밟히고 묶여 있다"며 "공식 수사기관에서 이를 드러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도 "검찰은 경찰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후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히는 것이 검찰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피소 가능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김민정기자

'금은방 털고선 버젓이 순찰' 직업윤리 저버린 광주경찰

서부경찰 소속 경위, 범행 뒤에도 태연히 근무

광주에서 현직 간부 경찰관이 새벽을 틈타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침입,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뒤 20일 만에 검거돼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최소한의 직업 윤리마저 저버린 것이어서 경찰 조직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금은방에 침입해 수 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서부경찰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모 금은방에 공구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 금반지·진주 목걸이 등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수천만원대 빚을 갠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주도면밀한 도주 행각에 검거에 애를 먹는 사이, A경위는 소속 관서에 출근해 버젓이 관내 치안 순찰 등 업무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지역 모 병원에서 임원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후 10시48분께 검거됐다. 범행 20일 만이었다. A경위는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저지른 일이다'며 혐의를 시인했고,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은 충격이 가시지 않는 듯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 경찰관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졌다. 조직 내부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원인 볼 낯이 없다'며 뒤숭숭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경위의 동료는 "뜻밖의 일이라서 황망하다. 입이 열 개라도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일선 경찰서 모 형사는 "기강 해이 문제가 아니다. 직업 윤리를 망각하고 일말의 야심마저 저버린 천인공노할 행태다"라고 격분했다. 더욱이 국가·자치경찰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크나큰 약재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에 맞춰 신설된 부서에서 일하는 한 경찰관은 "가장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난처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뿐이다"며 "그동안 경찰 조직 비대화·권력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번 일로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 오모(39)씨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되물으며 "조직 기강은 물론이고, 경찰관 개개인의 윤리 의식부터 다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도 피해를 입은 금은방의 인근에 신봉우기자

시는 배모(27·여)씨는 "흔히 불러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영세 상인의 등을 후려친 격이다. 국민과 사회에 봉사해야 할 경찰관이 중범죄를 저지르다니 뻔뻔하다"고 성토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올해는 경찰 조직의 위상·권한이 높아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 신뢰를 전제로 경찰에 힘을 실는 제도가 마련됐는데 여기에 '잔물'을 끼얹은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 자체 관리를 한다"며 "A경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적 경찰관'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광주경찰은 직원들의 범법 행위가 잇따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동부경찰 형사과 소속 B경위는 지난해 5월에는 절도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리)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리됐다. 광산경찰서 소속 또다른 경위는 전임자인 전남 모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부정금전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전임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은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봉우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